

다산포럼

이승우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은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의 그늘 아래 있는 세밀화 가들의 삶과 예술, 음모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소설에는 서구 유럽이라는 타자와의 만남에 대한 오스만제국의 호기심과 두려움이 원근법이라는 회화 기법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선형적으로 주어진 관념의 세계를 그리던 세밀화가들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풍경을 그리는 이탈리아의 새로운 화풍은 아주 낯설고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대로'(원근법에 따라) 그리다 보면 신전보다 개를 더 크게 그리거나 왕보다 노예를 중앙에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가리타니 고진이라는 일본의 평론가는 이것을 산수화와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원근법이 무시된 채 그려지는 산수화의 화가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인 개념', 즉 '형이상학적 모델'을 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말을 바꾸면 선형적인 개념이나 형이상학적 모델에 근

거하여 그림을 그리는 한 결코 있는 그대로의 풍경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개는 이렇게 생겼다, 또는 이리러려야 한다는 관념, 혹은 형이상학이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풍설이'나 '뿔뿔이'라는 이

름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개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왜곡시키기도 한다. 개를 식용으로 내다 팔기 위해 기르는 사람과 집을 지키려고 기르는 사람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기르는 사람 사이에는 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멀게 자리하고 있다. 세상에 똑같은 개는 한 마리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디에 있는 무엇을 보느냐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원근법의 산물이라고 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이 큰가?' 하는 질문에 대한 원근법적 대답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 크다'이

다. 아무리 높은 산도 멀리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낮은 언덕에 의해 가려진다. 사 진을 찍을 때 얼굴을 작게 나오게 하려고 뒤에 서는 것은 우리가 그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전은 신이 거하는 집이므로 언제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게, 중심에 그려져야 한다는 생각, 숭탄은 위대하므로 이 세상 어떤 인간보다 돋보이게,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굽살거리게

가치의 원근법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것들, 그렇다고 인정되어 온 것들로 인해 다른 것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나아가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것을 가르는 기준으로 원근법적 사고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이나 허구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을 위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컨대 보이는 대로 먼저 보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표현

이 성경에 나온다. 성전의 신성함, 숭탄의 위대함, 이념의 가치 같은 것을 원근법적으로 읽을 때 어떤 뜻이 되는지를 환기시키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더 직접적으로 이 점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왕과 신에게 한 일이 된다.

반대로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왕과 신에게 하지 않은 일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왕과 신보다 가깝게 있기 때문이다. 아니,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왕이고 신이기 때문이다. 소소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우화인데, 자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왕에게 역올해 하며 이렇게 항의하는 무리가 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왕의 대답은 이렇다.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크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

(조선대 교수·소설가·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은행권 영업시간 단축 이기적 발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여론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평일 영업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9일 "은행 창구영업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고객 불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단축 배경에 대해 노동강도가 살인적일 정도로 극심해 파로사가 속출하는 등 업무과중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일본이나 캐나다, 영국 등의 선진국이 은행 영업시간을 3시30분 전후로 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객의 편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조합원의 편리성에만 치우쳤다.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한마디로 본말이 한참 전도된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혈세인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살아났고, 지금은 대표적인 고임금 직종이 됐다. 그런데도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함만 쫓는 발상은 극도의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을 더 채용해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순리다. 은행은 최근 사상 최대의 순익을 내고 있지 않은가. 고객의 연봉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고통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금융노조는 오히려 업무시간 연장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퇴근시간도 없이 일에 파묻힌 서민들에게는 '귀족노조'의 우월감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안을 즉각 철회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공중보건의 무단이탈 근절 대책 없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공중보건의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 특별조사 본부는 여수와 영광 등 도서지역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실태를 양행감찰한 결과, 31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밝혀냈다. 관리감독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기에 이런 사태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한심하다.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이탈은 상식을 벗어난다. 한 공중보건의는 지난해 5월 부터 2월까지 21회에 걸쳐 무려 171일이나 자리를 비웠고 다른 3명도 최소 78일 이상 '장기 출장' 중이었다. 고대근무를 하며 한 두 명만 보건지소를 지켰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들은 영리행위를 하거나 시험준비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상당수 공중보건의들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거나 당직을 하며 하루밤에 30만~5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수당을 챙겼다고 한다. 공중보건의들의 도덕 불량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목인 의혹도 빠지지 않는다.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시·군·구에서 맡고 있다. 전남도는 매년 한 차례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근무지 이탈을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시·군에서는 적발하지 못한 탈선행위를 감사원은 어떻게 밝혀냈는지 의문이다.

공중보건의는 의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병역의무 대신 부여되는 특례제도에, 의료 시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주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로 평균 150만 원의 월급까지 주고 있다. 그런 공중보건의들이 근무를 소홀히 하면 진료를 제 때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중보건의의 근무기강은 엄정해야 한다. 특히 근무지를 이탈해 돈을 버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허술한 관리감독체계를 서둘러 정비해 공중보건의들의 무단이탈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숨겨진 펄쳐지고 있는 축구경기에 서 공격수가 결정적인 실수로 골방을 찬 스를 날려보냈다. 감독은 즉시 실축한 선수를 불러들이고 다른 선수를 투입, 결국 교체 선수가 골을 넣은 덕분에 경 고 최대한 등을 활처럼 구부린다. 사슴들은 아침이면 네 발을 동시에 들고 점프하는 동작으로 운동장을 뛰어 다니곤 한다. 기린은 긴 목을 이완시키려는지 당치 않는 높은 나무를 향해 목을 쭉 펴고 긴 혀를 내미는 동작을 한다. 원숭이들은 줄을 잡고 한팔 혹은 두 팔 아니면 개꾸로 매달려 줄타기 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 사례는 외국의 한 청소년팀 감독을 맡았던 한국인이 겪은 실화인데 경기 후 그는 감독직에서 아예 쫓겨났다. 이유는 지나치게 승부에 연연, 어린 선수에게 실수 만화의 기회를 주지 않아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것이다. 마 음껏 자유롭게 즐기는 축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해일 사유였다.

이처럼 승리에만 목숨거는 한국 스포 츠가 지난 5일에도 웃음거리가 됐다. 울산에서 열린 코리아국제야구 여자 컵과 윈드 단체전에서 한국을 꺾고 동메달을 딴 프랑스대표팀 코치는 "자신들은 편

하게 활을 썼는데 한국선수들은 메달 압박이 너무 강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것 같다"며 한국선수들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했다.

'겨우 동호인 1천명으로 올림픽 금메 달 때는 한국과, 금메달은 따지 못하지만 동호인 6만명이 연중 각종 대회를 즐기는 프랑스중 어느 나라가 양궁의 강 국인가'라며 뼈가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국제적 망신살을 막 는 것은 학교스포츠클럽이다. 축구부에서 공부하는 시키지 않고 오로지 축구기계 만 만들면 학부모들은 결코 귀한 자식을 운동부에 보내지 않는다. 운동도, 공부도 못하는 나으자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초·중학교까지는 한 학교에 100명 정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취미로 축구를 하도록 해야 머리 좋고 실력있는 선수감이 많이 배출된다. 또 프로 선수가 되려면 나중에 공부도 성공한 그들은 축구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자식을 손잡고 경기장을 찾는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체부장 khh@

'불쌍한' 한국선수



NGO 칼럼

이재웅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존의 철학이 화(和)라고 한다면, 반대로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패권의 논리가 동(同)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은 공자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말로 남과 사이 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동조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화해는 하되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우리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공존의 철학인 화(和)는 사라지고 무엇인든 하나로 통일 시키고 동일화 시키려는 동(同)의 논리만이 난무하는 광주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인이 가지는 다양성을 무시한 채 몰개성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의 척도를 획일화 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한 발 물러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어떤 합의도 없이 학생다움이라는 신화(神話)속에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교복에 대한 규칙이 담겨 있는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어 만들어졌는지 무척 궁금할 뿐이다.

결국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철학이 부재한 곳에서는 학생을 죽음으로 내 몰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청소년 외면한 인권광주

최근 광주지역의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범죄와 학교폭력 그리고 반인권적인 검열(복장이 불량하다는 지적)이 불러 온 청소년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가슴이 아프다.

민주, 인권, 평화의 공동체가 가장 잘 실현돼야 할 교육 현장에서 사실은 가장 반인권적이고 가장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과 마주할 때 우리는 다시금 패권의 논리인 동(同)의 얼굴과 대면하게 된다.

며칠전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복장이 불량하다며 교사로부터 치마 단을 뜯기는 수모를 받고 수치심에 아파 트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교복 자체가 교사와 기성세대의 관전에서는 학생다움의 이름하에 통일성을 기하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학생 개개

할 것이다. 이번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침소봉대(針小樞大)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학생인권침해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광주지역 대다수 학교에서 벌어지는 체벌과 사생활 침해, 보충 자율 학습과 두벌규제 등은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고 청소년 인권은 결국 학교담장을 넘지 못하고 멈춰서 있음을 알 것이다. 인권의 도시인 광주가 언제까지 이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인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공동체를 가르치며 반복되는 실수일지라도 너그러게 기다릴 줄 아는 가장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광주의 교육 풍토가 조성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광주가 아시아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YMCA 청소년인권센터)

쇠고기 원산지 기재된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거의 있으나미한 수준이다. 원산지 표시 제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 고기를 한우로 파는것을 막자는데 있다. 하지만 식당들이 원산지표시를 아예 하지 않고, 소비자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단속기관은 아예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제대로 될려면 고기의 원산지와 고기 종류를 기재한 영수증과 거래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때야만 고기 한덩이라도 유통단계부터 시작해 소비자가 먹는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연계되어 철저히 감시가 될수 있다. 농정당국은 고기 종류와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서둘러주시 바란다. ▲최인준·광주시 북구 운동동



스트레칭은 기본



강연회에 가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 유난히 스트레칭이나 박수치기를 유도 하는 강사들이 있다. 박수치기는 혈액 순환을 도와 피로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 스트레칭은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고 온 몸에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스트레칭이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만점인 것은 아니다. 동물들도 스트레칭을 선호한다.

상당수 동물들이 아침 활동을 개시하기 전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쫄다. 믿지 못하는 독자들도 있었지만 사실이다.

새들은 일어나자마자 한쪽 다리를 쭉 쭉 펴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린다. 그래서 새알까. 대개의 새들은 고개가 180도를 넘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런 다음에 날개를 한차례 펼치고 활개를 친다. 이 동작은 스트레칭 뿐만 아니라 밤새 묻은 이슬

을 털어내는 효과도 있다.

포유동물도 비슷하다. 사진 속 여우처럼 네다리를 쭉 뻗어서 몸을 최대한 늘려보기도 하고 이후 한 두 걸음 걸으면서 한 다리씩 쭉쭉 뻗는다.

호랑이의 스트레칭은 몸을 늘리는 여우와는 다르다. 네 다리를 한곳에 모으고 최대한 등을 활처럼 구부린다.

사슴들은 아침이면 네 발을 동시에 들고 점프하는 동작으로 운동장을 뛰어 다니곤 한다.

기린은 긴 목을 이완시키려는지 당치 않는 높은 나무를 향해 목을 쭉 펴고 긴 혀를 내미는 동작을 한다. 원숭이들은 줄을 잡고 한팔 혹은 두 팔 아니면 개꾸로 매달려 줄타기 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

◇최종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육수 우려내는 거름망 자연소재 사용 했으면...

식당에서 육수를 우려낼 때 여러가지 식 재료를 담아서 끓는 국통에 담가 사용하는 주머니가 유해하다고 한다.

섭씨 100도가 넘는 뜨거운 국물 속에서 여러가지 재료가 우려나지만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양파망·마늘망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폴리페놀과 같은 유해물질들이 같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많은 음식점에서 이같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양파망·마늘망 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오래 시간에 걸쳐 유해물질들이 음식에

쌓여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주머니 말고,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사용하는 천연 섬유로 만들어 인체에 무해한 삼베 주머니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루빨리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양파망·마늘망을 음식점의 국통에서 볼 수 없기를 바란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박옥희·광주시 북구 우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대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광국국	2200-5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인	2200-536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